우리 복지관은 지금 19.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커피 찌꺼기, 지역 사회로 '순환'



'Re사이클 We사이클' 참가자가 직접 만든 커피박 키링과 포장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은씨(가명)는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사도 잊은 채 키링이 담긴 가방을 건넨다. 카페 사장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 찌꺼기를 다시 내어준다. 정은 씨는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친 뒤, 커피 찌꺼기가 담긴 가방을 꼭 쥐고 센터로 돌아온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 기관이다. '보호자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센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는 센터, 지역사회 속 당사자의 삶이 있는 센터, 당사자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센터'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Re사이클 We사이클'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구 '복지이음' 공모에 선정되면서 'Re사이클 We사이클 2.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자들은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에서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가 나오고, 이를 다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흥미를 보였다. 지역 카페에서 수거한 커피 찌꺼기는 '커피버스기계'를 거쳐 점토로 만들어진다. 이후 틀을 활용해 모양을 만들어내면 키링과 자석 등의 공예품으로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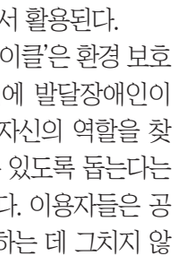
공예품은 한 가지 틀을 사용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용자들이 저마다 원하는 색을 입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완성한다.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시기에는 더욱 다양한 모양의 틀을 활용해 만드는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완성된 공예품은 포장 과정을 거쳐 커피 찌꺼기를 제공한 카페로 돌아간다. 버려질 뻔한 커피 찌꺼기가 이용자들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공예품으로 바뀌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예품은 카페를 찾은 주민 중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전달돼 가방의 키링과 냉장고 자석 등 일상에서 활용된다.

'Re사이클 We사이클'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자들은 공예품 제작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든 작품을 카페에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기쁨도 느낀다.

센터는 현재 중구 중림동 카페 5곳과 협력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 카페들도 장애인들이 주민들과 만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해당 사업의 2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커피 찌꺼기 활용 제작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며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조현아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팀 교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⑨ 만다라와 명상의 만남

마음을 보고 마음을 그리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남산 충정사에서는 가을맞이 '남산-숨, 쉼' 선명상 클래스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루마인드 만다라 명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마음을 색과 형태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었다.

일요법문에서 신도들에게 종종 "지금 이 시간을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오늘의 지금은 잠시 뒤 과거가 되고, 그렇게 쌓인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육조단경〉의 무주(無住)에 대한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혜능은 "염념부주(念念不住), 전념(前念)、금념(今念)、후념(後念), 염념상속(念念相續), 무유단절(無有斷絕)"이라 했다. 생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앞생각과 지금 생각, 뒤의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어느 생각에도 붙잡혀 머물지 않는 것이 무주라는 가르침이다. 이어 "한 생각이 머물면 생각마다 머물게 되어 속박이 된다"고 설명하고, 모든 법 위에서 생각마다 머물지 않을 때 얽매임이 없다고 말한다.

만다라 명상도 바로 이러한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됐다. 명상으로 현재의 몸과 마음을 살핀 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과 기억을 색채와 형태, 상징으로 원 안에 담아본다. 신희숙 명상 안내자는 명상이 현재 마음을 알아차리고 성찰하게 하는 틀이라면, 만다라 미술은 그 내면 경험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다시 바라보고 의미화하도록 돕는 표현의 통로라고 설명한다.

색과 형태로 현재 마음 표현하는 시간
주의 집중·파편화된 경험 재연결 과정
과거·미래 벗어나 지금의 나로 살게 해

원 안에 무엇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밝은색도, 어두운색도 있었으며, 가득 채워진 자리와 비어 있는 자리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스스로 바라보는 일이었다. 만다라의 원형 구조는 흩어진 감정과 생각을 하나의 경계 안에 담아내고, 산만한 마음을 현재의 자리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정서적 '담아냄'과 주의 집중, 그리고 파편화된 경험을 다시 연결해 보는 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행 역시 마음속 생각을 모두 없애는 일이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찾아오면 찾아온 줄 알되 거기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이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됐고, 오늘의 나는 다시 내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지금 이 순간뿐이다.

'남산-숨, 쉼'의 만다라 명상은 참가자들에게 잠시 멈추어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원 하나를 내어주었다. 그 원 안에서 각자는 잊고 있던 자신의 감각과 마음의 빛을 다시 만났다. 지나간 생각에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의 한 호흡과 한 마음을 온전히 살아보는 것, 그것이 이번 가을 함께 나누었던 쉼이자 수행의 의미였다.

지금을 잘 지내는 일이 결국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한 생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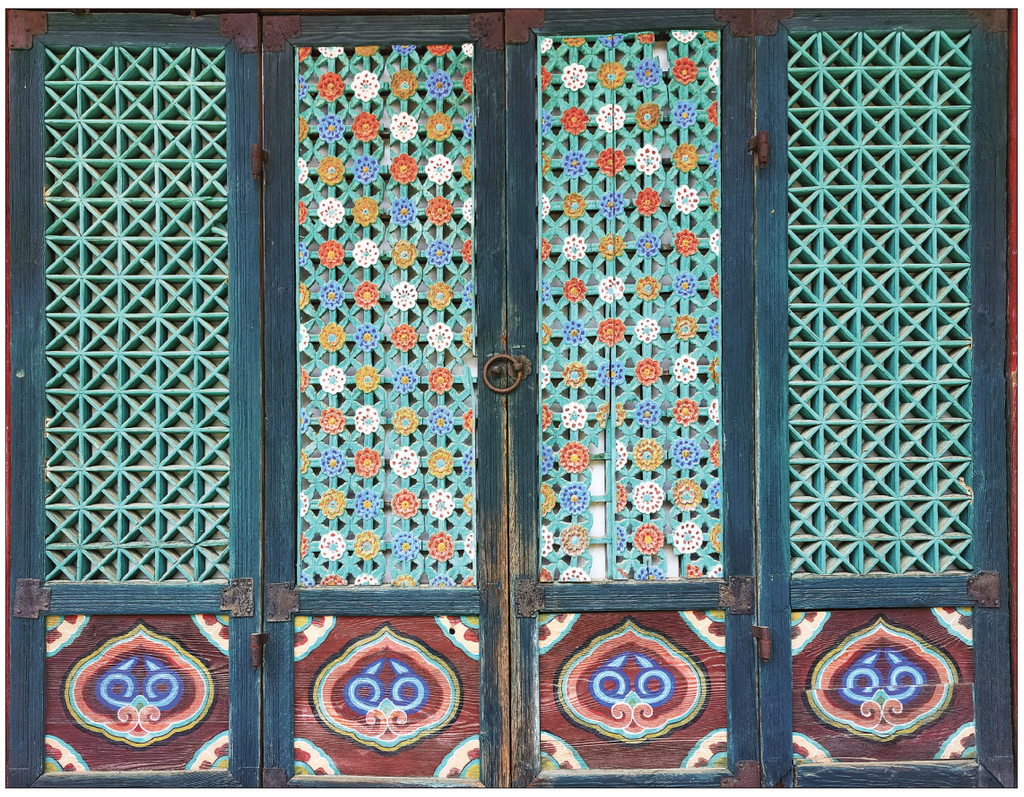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㊱ 어떤 시

나의 할머니는 '문맹'이었지만 빼어난 '시인'이었다. 특히 자연의 목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탁월했다.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할머니는 곧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지력에 감탄하는 어린 손녀에게 할머니는 뒤뜰의 대나무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나무밭의 바람 소리를 잘 들어 봐. 비가 오기 전에는 바삐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들려."

예순 살에 홀로 된 나의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집안은 물론 동네의 어른으로 사셨다. 상당수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논을 소작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상 협동농장 같았다. 그 시절에는 주인과 소작인이 수확물을 절반씩 나눴다. 그것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묵갈림'이라 했다. 볏단을 나눈다는 뜻이다. 그런데 씨앗과 품삯, 비료, 농약 등에 들어가는 돈을 소작인이 부담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주인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었다. 내 할머니의 '묵갈림'은 그 반대였다.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은 전면 세 칸의 맞배집이다. 칸마다 네 짝씩 12개의 문 가운데 맨 안쪽 두 짝만 꽃살문이다. 나머지 문살은 모두 촘촘히 견실하게 짜인 격자빗살이다. 그렇게 절제된 장엄이어서 더 아름답다. 내 눈에는 꽃살문을 돋보이게 하는 격자빗살문이야말로 정녕 꽃이다. 한 편의 시도 읽은 적이 없는 내 할머니의 삶이 한 편의 시였던 것처럼.

손영자 작가



남장사 극락보전.

